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내 천주교 첫 순교자 유해 완주서 발견

복자 윤지중 바오로·권상연 야고보 윤지현 프란치스코 등 3명 유해 발굴 출토물 연대 순교한 1791년과 부합

완주에서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복자 윤지중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200여년 만에 발견됐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1일 천주교 전주교구청 호남의사도 유행감관 4층 대강당에서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견 및 교구장 교령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사진 2면> 이 자리에는 천주교 전주교구장인 김진태 사도 요한 주교와 전주교구 총대리 겸 사무처장인 김희태 사도 요한 신부를 비롯해 초남이성지 담당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 호남교회사연구소 장 이영춘 사도 요한 신부, 김진화 마태오 신부 등이 참석했다. 전주교구 초남이성지 담당인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는 이날 "지난 3월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 있는 초남이성지의 바우배기에서 성역과 작업을 하던 중 순교자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물이 출토됐다"며 "묘소의 정밀조사 및 출

토물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묘지의 조성연대와 출토물의 연대가 세 복자의 유해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해 발굴은 2018년 8월 초남이성지에 부임한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가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 있는 초남이성지를 둘러보던 중 바우배기라는 곳을 방문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김 신부는 유해감 복자 가족의 묘가 1914년 치명자(삼지기로 이장되기 전까지 원래 묘지터가 자리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곳에서 원래 묘지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한국자신관공사에 매입 의사를 밝히고 무덤을 개장하는 등 유해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후 지난 3월 11일 연교자가 나타난 1·2호기를 제외하고서 8기의 묘를 개장한 결과 5호기와 3호기 무덤에서 순교 복자들로 추정되는 유해와 함께 인적사항이 분명하게 표기된 '백자사발 지석' 등을 발견했다.



바우배기 순교자 묘지 위치 <사진=전주교 전주교구 제공>

하지만 전주교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순교자 유해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에 대비하고자 유물과 유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천주교 전주교구 호남교회사연구소는 전 전북대학교 고고인류문화학과 윤덕향 교수·전북대 의과대학 해부학 송창호 교수 등과 함께 유해감식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묘지의

조성연대와 출토물의 연대가 복자 윤지중 바오로와 복자 권상연 야고보가 순교한 1791년과 부합하고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사발지석의 명문 내용이 복자 윤지중·권상연의 인적사항과 각각 일치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성별 검사, 치아와 골화도를 통한 연령 검사 및 해부학적 조사를 통해 성별은 모두 남성으로, 연령은 순교할 당시의 나이와 부합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유해에 조선시대 형벌의 하나인 능자치사의 흔적이 선명했으며, 부계 확인검사를 통해서도 해남 윤씨와 안동 권씨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주교구는 전했다. 이에 복자 3명으로 추정되는 유해의 진정성에 대한 해부학적·고고학적 정밀감식을 요청 연구 결과 3명의 유해가 윤지중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로 판명됐다. 교회법원은 지난달 18일 교회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3명의 유해가 확실하다고 선고했다. 전주교구장 김진태 주교는 담화문에서 "유해 발견은 실로 놀라운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순교자들의 피를 밀고 거듭 살아 성장해온 우리 교회가 순교 역사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시는 분들

의 유해를 비로소 찾았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저는 먼저, 이를 섭리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미, 영광을 드린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한 감동과 기쁨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지중 바오로는 1784년 김범우의 집에서 '천주실의'와 '철국'을 접하고, 고종시종인 정약용 형제의 가르침으로 천주교에 입교했다.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운 '폐제분주' 사건을 일으키고 어머니의 장례를 천주교 예법으로 치렀다. 이 사건으로 1791년 전주 남문밖(전동성당 터)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윤지중과는 내외종간이고 유랑함과 이종사촌인 권상연 야고보는 윤지중 바오로와 함께 조선교회에 내려진 제사 금지령을 따르다가 신주를 불태우고 천주교식 장례를 치렀다가 1791년 신해박해 때 전주 남문밖에서 참수됐다. 이들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내놓은 한국 천주교회 첫 순교자로 기록됐다. <원주=이중복기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북도, 24개사 신규 지정 12개 기업·39명 인건비 지원

전북도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기업 재정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2021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24개사와 제3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결과를 1일 발표했다. 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응모한 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목적 실현, 사업의 지속가능성, 대표자 사회적기업가 마인드, 향후 인증사회적기업 진입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예비사회적기업 24개사를 선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24개사는 일자리창출, 마케팅, 판로지원 등 재정지원(공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제3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12개 기업, 39명을 지원한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속가능성, 근로자 고용유지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의 필요성, 신청내용의 시행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업에게는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유호상 기자>

9월 첫날, 진안고원 어느 마을 앞 토실토실 익어가는 알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알밤이 가을이 익어가고 있다.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을 20여일 앞둔 1일 오후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구암마을 앞 밤나무의 알밤들이 수줍은 속살을 내비치며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코로나19 극복·민생안정 '방점'

전주시, 2조5019억원 규모 추경예산안 편성 시의회에 심의 요청

전주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4,296억원이 증액된 총 2조5,019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16억원(22.70%), 특별회계가 80억원(3.74%) 늘어났다. 이번 추경은 포스트코로나 대응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먼저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42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49억원 ▲전북도 재난지원금 680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4억원 등 총 2,35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골목상권 릴레이 소비촉진 7억7,000만원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9억7,000만원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64억5,000만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2억원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2억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4억2,000만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시는 또 민생안정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07억원 ▲전주권 소각처리센터 위탁운영 8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4억 6,0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34억 원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이) 20억원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 10억원 ▲속고개로 조성(국립박물관~속고개 국도도로 IC) 8억원 ▲공원유지보수 9억원 등 총 576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전주 신산업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14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1억원 ▲한시 생계지원 67억원 ▲전기승용차 및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63억원 ▲인후반촌 뉴딜사업 4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원 ▲혁신도시 미세먼지·악취

저감술 조성 23억원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 24억원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41억원 등 국·도비 확보 증가에 따른 대응 지원사업 예산으로 1,367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국·도비 보조금 2,610억원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410억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52억원, 전년도 잉여금 335억원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승수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예산안외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자금을 조속히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